

이 엄청난 책의 숲을 거니는 기쁨

'90서울도서전을 둘러보고

원재훈

시인

아직도 책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이번에 열린 '90 서울 도서전시회'에서 현수막으로 내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책"이라는 대명제를 머리 속에 집어넣고 나는 엄청난 덩치를 한 올림픽공원 입구에 내렸다. 지난 85년 이후 여러가지 이유로 중단되었으니까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두고 열리는 전시회만큼 미리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주최 측이 꽤 신경을 써서 여러가지 기획 전시회가 구비되어 있다고 들었다.

이미 완연한 가을날씨는 잘 꾸며놓은 올림픽공원을 여러가지의 색깔로 바꿔놓고 있었다. 나보다 앞서 도서전시회쪽으로 가고 있는 듯한 사람들의 뒷모습에서 책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를,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각종 서적이 줄줄이 펼쳐져 있기를 떨어지는 나뭇잎에게 빌었다.

나뭇잎이 마치 낡은 책의 한 페이지처럼 찢어져 뒹구는 풍경이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했지만, 그것은 한낱 버릇일 뿐이다. 새삼스러운 말 같지만 독서의 계절이 어디 따로 있겠는가. 종조체의 깨알만한 글씨를 계절 가리지 않고 읽고, 외우고, 깨우치고 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책이 귀하고 없어서 못 읽었다는 말을 떠올렸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책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것이다. 그들이 느끼건 못느끼건 간에.

이런 가정을 상상해 보자.

독자는 태양처럼 지상에 무성하게 널려져 있는 나뭇잎을 읽고 나뭇잎은 책의 페이지 페이지가 되어 다양각색의 삶의 모습을 잎맥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뭐 이런 식이라면 이번 도서전시회의 주제는 그리 과장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서 나는 '그러나'라는 단어 하나를 살짝 그 감상의 뒷면에 끼워 넣는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책을 읽자"라고 끝을 맺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안내책자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는 20만종의 각종 도서·잡지를 전시하고 직매까지 한다고 했다. 현재까지의 참가신청현황을 보면 사별전시대가 91사 1백 61부스, 잡지광장이 70사 7부스, 특별기획전시대가 500사 39부스, 전자출판플라자가 2사 3부스, 음향도서전시대가 1사 2부스 등 모두 6백64개사 2백12부스에 이르고 이 수준은

지난번의 배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관심은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책, 책이라고 이름 붙여진 모든 것들일 뿐이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각종 대형출판사와 군소출판사들은 그런대로 3색이 맞아들어 보였다. 모 대형출판사에서는 백남준 비디오 아트에서 본듯한 대형 멀티비전을 설치해놓고 짧은 치마의 미인들을 안내요원으로 동원하는 등 아주 독특하게 전시대를 꾸며놓고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부터 엄청나게 양산된 각종 소형 출판사들의 고만고만한 기획출판물들이 평소에 나의 관심을 끌었지만 한 두 출판사를 빼놓고는 눈에 띄지도 않았다. 아직 작은 출판사들은 이런 행사에 참가할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해서일까 아쉬웠다.

서점에서 책구경하듯이 얼핏얼핏 사별 전시대를 지나치면서 출판사쪽에서 준비한 홍보물들을 한점씩 받아들이고 나는 한국 교과서 역사전에서 잠시 발길을 멈추었다. 개화기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국·검인정 교과서 1천3백여종이 진열되어 있는 교과서전을 보면서 나는 "교과서"라고 짧게 중얼거렸다. 나에게 책은 교과서밖에 모던 시절이 있었다. 오로지 교과서만 딸딸 외우던 시절(사실 그렇지도 못했지만), 그 시절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인가. 그러나 교과서는 역시 교과서였다. 누런색의 색바랜 옛날의 그 책가를 보는 순간 우리 생의 한 정형으로서 자양분을 공급해주던 그 책장에서 나는 묘한 향수를 느꼈다.

내용은 순 엉터리이면서 표지장정과 본문 레이아웃, 그리고 요란한 제목으로 독자를 현혹하는 서적에 비할 때 이 순박한 교과서는 얼마나 단아한가. 마치 아픈 배를 쓸어 내려주는 어미의 손길같이 말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는 이 교과서 밖에서 생을 위해 창조적 사고방식의 상상력을 키우고 거칠고 힘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서적을 많이 권해야 할 것이다. 언제나 어미의 품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단답식·객관식 문제풀이의 사고방식만큼 사람을 경직시키는 것은 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색한 마이크소리가 들려온다. 장편소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가 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작가에게 관심있는 일반독자에게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았다. 한바탕 웃음소리가 들린다. 보기 좋은 풍경이었다. 이 행사



저자와의 대화.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가 초대됐다.



특별기획전으로 마련된 북한도서 전시코너.



멀티비전을 동원, 눈에 띄게 이색적으로 꾸민 한 출판사의 전시대.

역시 다양하게 기획된 이번 전시회의 이색적인 코너로서 전시장의 한쪽에 무대를 설치해놓고 고은, 이청준, 문순태, 이영희, 이해인씨 등 매일 2~3명씩 행사가 끝나는 날까지 이른바 알려진 작풍집 몇점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독자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연예인들처럼 떠들썩하지도 않고 단단한 내용이 오가는 좋은 자리로 보였다.

바로 옆자리에는 '100인의 인기작가가 자처한 자신의 책한권'이 진열돼 있다. 책의 아래에



출판사측에서 나눠준 풍선을 든 아이들이 줄을 지어 전시장을 돌고 있다.

는 작가들이 자필로 쓴 듯한 책의 소개가 재미있게 읽힌다. 소설가 박범신은 그냥 자기 이름만 박범신이라고 써놓고 책소개란을 비워놓았는데 독특하고 재미있게 보였다. 작품내용은 직접 읽고 느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일까?

통일이라는 구호를 요즘처럼 많이 들어본 적이 없었던 나로서는 막연히 북쪽 사람들은 머리에 외뿔이 난 도깨비인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다.(실제로 뿔이 난 도깨비 형상의 조각한 선전 팸플릿을 본 기억도 난다) '북한간행물전'에 북한의 교과서와 국민교양도서를 150권 모아 전시해놓고 있었다. 김일성 주체사상

과 그의 교시를, 고딕체의 고정불변의 진리로 이루어진 그 책들을 보면서 문화적으로 너무 우리와 동떨어진 현실감이 무섭게 다가왔다.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자. 문화란, 책이란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북쪽 사람들이 도깨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요즘 아이들은 알 것이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가.

그리고 얼핏 지나쳐 버릴 정도로 작은 한 코너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자들 도서코너'. 여기서 장애자란 물론 시력장애자와 청력장애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 코너에는 시각장애자를 위한 점자도서 124종 140책, 농아자를

위한 수화 8종 15책, 구화 1종 등 모두 135종 158책이 전시되어 국내에서 발행되는 장애자용 도서들이 골고루 망라되고 있었다.

언젠가 내가 다니던 출판사에서 모 시인의 시집을 점자도서로 만들어 볼 기획을 한 적이 있었으나 흐지부지되어버렸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판사에서는 해내기 힘든 작업임에는 틀림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 코너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다행일 정도로 한가했다. 날이 갈수록 문화자체가 시각적으로만(비디오·영화 등) 발달해가고 있는 현실에 이들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들에게도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서의 출판보급이 아쉬웠다. 그러나 그런 아쉬움따위는 그들의 현실에 비교해 볼 때 얼마나 가소로운 감상인가.

'엄마가 쓰고 그린 생활동화 그림책 원화전' 코너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소풍나온 듯 몰려 다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어린이 도서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손에는 책이 아니라 하나 같이 몇 대형출판사에서 나누어 준 듯한 홍보용 고무풍선이 손에 들려 있었다. 그 고무풍선을 들고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모습이 뽕뽕 떠보였다. 꼬맹이들에게 풍선 하나씩을 들려서 뭘 어찌자는 건가. 짜증이 났다.

책의 날(나는 이날 처음 책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인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올림픽건물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조형미를 갖추었다는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90 서울도서전시

회. 독특하면서도 독자들의 흥미를 충분히 끌 수 있을 것 같은 각종 특별기획 전시를 비롯한 전시대를 쭉 돌아보고나서 나는 다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책"이라는 주제를 떠올렸다. 그랬다. 어쨌든 우리들의 삶은 풍요로워야 한다. 그것의 일조를 위해서 책이 있다. '그러나' 도서전시회를 관람하고 나서 버스정거장에서 차를 기다리던 중, 그 책이라는 것이 왜 그리 왜소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올림픽 대형 고층아파트 사이에 서성거리는 왜소한 사람들 처럼. 그래, 그들의 손에서 책이 떨어진 것은 분명한 현실이었다. 책말고도 그들의 생을 풍요롭게 한다고 착각하는 대체매체들이 너무 준비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 시인의 좌절은 언제나 희망을 품고 있다. 읽는 것과 쓰는 것은 어떠한 첨단매체를 통해서건 영원할 것이다.

버스정거장의 한귀퉁이에선 전시회에서 사온 듯한 책자를 한아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과, 도서전시회용 각종 팸플릿이 어느덧 쓰레기가 되어 가을바람에 스산하게 날려져 있었다. 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는다. 바람이 싸늘했다.

*마루벌은 산마루의 마루, 벌판의 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상의 으뜸을 뜻합니다.

마루벌

기획 · 출판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40-6
Tel: 701-2391(대표) ● Fax: 701-2395

“원고만 준비 하세요?”

사보 / 잡지 / 신문 / 단행본 / 홍보물

편집과 수정이 용이한 첨단 매킨토시로
전문 편집인이 만들어 드립니다
제판 · 인쇄 · 납품까지 정성어린 마음으로 ...

영업경력

안정과 성장을 원하는
패기에 찬 인재를
찾습니다

자격: 전대졸, 경력 3년이상
구비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면으로 편집, 번거로운 대지작업은 없습니다 ● 다양한 서체, 글자변형, 컷도안이 자유롭습니다 ● 종이 · 인쇄지 · 필름 등 원하는대로 출력 ●